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에서의개인주의

에리코말라테스타

에리코말라테스타
아나키즘에서의개인주의
1897

Complete Works of Errico Malatesta, Volume III, ed. Davide
Turcato

kr.theanarchistlibrary.org

1897

차례

아나키즘에서의개인주의	3
개인주의에대한첨언	6

아나키즘에서의개인주의

우리가이 글을쓰는것은불쾌한활동에대한정당화수단으로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고자칭하는자나경찰과공중질서·부르주아지와도덕·정의의관계와유사한정도의관계를아나키즘과맺고있는자들에대해이야기 하려고하는것은아니다.

또한이 글은“수단적으로개인주의적인”동지들, 즉, 오늘날의투쟁에서개인적인행동을선호하거나이에전적으로의존하는동지들에대해이야기하려는것도아니다. 이동지들은개인적행동이더효과적이라고생각하고, 어떠한조직도, 집단적합의도개인의자유를제약한다고보기에이 방식을택한다. 이동지들의전술적, 원칙적문제에대해서는조직에대한문제를다룰때이야기하도록하겠다.

이 글에서우리는철학으로서, 인간사회의본질에대한총체적이해로서, 개인과그룹의관계로서개인주의를다루고자한다. 이러한개인주의는우리동지들중일부가 (때로는스스로인지하지도못한채) 보여주고있다.

개인이완전한물리적, 도덕적, 지적발전이가능하다고믿고, 개인의가장큰행복을성취하는데있어서사회가장애물이아니라도움이이라믿는다는의미에서스스로를개인주의자라부르는사람들도있다. 하지만이러한 측면에서우리를모두개인주의자라부르는데는아무런문제가없다. 우리가스스로를그렇게자칭하지않는이유는, 우리는다른중요한것들을더많이바라보고있기에개인주의자라고자칭하는것은혼란일뿐이기때문이다. 앞서말한측면에서우리는아나키스트나사회주의자임과동시에개인주의자이기도하다. 그리고다른모든학과나당도마찬가지다. 개인만이 유일하게지각과의식이있는존재이며, 우리가즐거움이나고통, 자유나예속, 권리, 의무, 정의등을이야기할때, 우리는살아있는개인에대해서만떠올리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때로개인주의는단지단순히언어의문제이며전혀중요한것이아니다. 하지만간혹개인주의를받아들이는이와그것을회피하는사람사이에실질적이고중대한차이가발생하곤한다. 이두집단의궁극적인목적은같은지라도실질적인결과물은크게다를수있기때문이다. 이중하나를흘려보며반동이라고취급할이유는없다. 아나키스트들의“철학”에빠지려하던그순간부터이처럼혼란스러운개념과언어들이트워어나와 앞뒤도, 우리가동의하는지아닌지도알수없게만들어버렸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가스스로에게잘설명하는것은긴급한문제라하겠다. 이로써

우리가 특정 동지들의 활동 전체를 사로잡아 실질적 선전 작업에 해가 되게 하는 추상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적이나 키스트들이 말하고 쓴 모든 것을 엄밀히 검토한 후, 우리는 그들의 논리에 두 가지 함축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관념이 공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지어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고 부르지는 않는이나 키스트들의 사상에서도 서로 다른 모양새로 계속 튀어나온다.

첫 번째로, 이들은 사회가 스스로 온전하며 스스로 자족할 수 있어서 스스로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함께 할 이유가 없고, 사회가 제공하는 이익이 사회가 희생을 요구하는 개인적 자유보다 작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치적 개인의 총합이라고 바라본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인간 사회를 모든 주주들이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주식회사처럼 바라본다. 오늘날 소수 개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나머지 사회와 사회 속 승자들에게의 해 규정된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토지와 노동의 수단을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만약 인민들이 특정 계급의 조직된 힘이 강제하는 예측으로 떠밀리지 않는다면, 이익을 주지 않는 사회에 누구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면, 그는 자유에 대한 필요를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고, 개인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희생하게끔 하는 모든 형태의 공존은 거부될 것이다. 이들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말을 가장 협소하고 절대적인 행동의 정언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개인주의자들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진 자치적 개인의 존재를 상정하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다양한 열망이 등장하면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 갈등에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는 사라졌어야 할 압제와 착취의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두의 복리를 갈망하는 개인주의적이나 키스트들은 모두의 영구한 복리와 개인의 불가침의 자유라는 두 원칙 사이의 논리적 비약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원칙을 들고 나온다. 자연법에 따른 조화가 그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불가변적이고 자연적으로, 개인이 오직 다른 이들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만큼만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본다.

한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자유는, 인간의 모든 시설 위에 펼쳐지는 우리의 자유는, 다른 이의 자유를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의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별들과 같이, 개인은 스스로의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다른 이의 자유와 겹치지도, 이를 통한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생리학을 천문학으로 대체하여, “식물과 동물에서 세포들이 공감적 응집”을 이룬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

다. 아니면 힘으로, 소수에 의한 강압으로 이루어져 이를 강요한 자들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착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자유롭고의 지적인 협동이 아니키다.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한 강요된 협력은 권위주의 체제다.

있어가장완벽함이상에대한확인이다. 하지만이상이아닌긍정적이고실질적인현상에대한이야기라면, 혹은이러한이상이단지현존기구를파괴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고말하는것이라면, 이는단순히추상적관념으로현실을부정하는오류가될것이다. 우리가프롤레타리아로서, 피통치대중으로서감내해야하는억압에대한이야기를잠시미루어두자. 그렇다면당신이하고싶은것이 많겠지만, 그것이타인을불쾌하고불편하게한다면하지말아달라. 우리는자발적으로공동체를위한희생을포기하면서즐거움을느낄수있다. 하지만우리는우리가무엇이건할수있도록해주는타인들이서로다른취향과필요가만족될때더즐거울것이다. 우리의자유는언제나타인의자유에의해제약된다.

그리고우리는“취향과사치”에대해서만이야기하는것이아니다. 기초적필요를충족하는것에서조차자연스러운갈등이등장하게된다. 그리고이를모두의선함이라는관점에서해결하는것은인간의과제다. 누군가다른사람에게서빼앗아야만얻을수있는음식을갈망할수도있고, 다른누군가가이미차지하고있는자리를채워야할필요가있을수도있다. 우리는모든종류의식량을, 모두가만족할수있을만큼생산할수있다. 하지만우선생산을해야한다.

이것이각자의환경에의해각자가원하는대로생산하면자연스럽고합의없이이루어질것이라는것은끔찍한실망만을낳을것이다. 실질적으로이러한방식은집행을방해하고, 타인의결정에의존해야하는상태로스스로를몰아가는것의의미할뿐이다.

이는노동에있어서도마찬가지다. 그들은노동이건강에유익하고, 개인의즐거움을위한유기적필요가있기에모두노동할것이라고말한다. 이는사실일지도모른다. 하지만사실이아닌것은, 운동의필요에따른생산량이자연스럽게필요생산량에맞을것이고, 인간이자발적으로생산수단이결정하는조건에적응할것이라는전제다. 만약모든사람이하고싶은일만을하고, 해야하는일을하지않더라도모든일이잘돌아간다고한다면필수적인잡무들은전혀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 누가잡무를하고싶어하겠는가. 누군가는합의를통해이일을해야만한다.

토지가거주민들을풍족하게먹이고, 노동이즐거움이나최소의노력으로조직될수있다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그럼에도조직이필요하다. 모두가임의로, 스스로원할때, 원하는방식으로, 타인이하는것에선경쓰지않고, 협력하거나집단적작업에포괄되는것없이노동한다하더라도, 모든일의끝에서우리는수많은날알과더많은기계와신발과아티초크가생산되는것을바라보리라.... 이것이신의손에자신을맡기는것과다른것이무엇인가....

결론을짓자. 인간은사회안에서살아야한다. 그리고사회안에서살기 위해서는타인과의합의가, 협력이필요하다. 이러한협력은자발적으로, 자유로운협약을통해이루어져모두의행복을위해사용될수도있을것이

른이들은수정의결정을이야기한다. 이렇게이들은자연과학전체를통틀어이야기한다. 그리고이들중누구도, 기형의수정, 생존투쟁, 우주적재앙, 질병, 유산, 재앙과상처의집합이존재한다는것을기억하려하지않는다.

부조화와의해관계충돌은현존기구의결과물이다. 국가를파괴하라. 거래와금융과화폐주의의완전한자유를존중하라. 토지의소유권이경작의무에구속되게하라. 아니면자급자족적농업을하라. 우리에게자유로운, 완전히자유로운경쟁을허하라 (터커학파의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은이렇게주장한다). 그러면세상에평화가찾아올것이다. 생산성과임지에따른가치차이인지대의차이는자연스럽게사라질것이고, 경쟁은자연의축복을모두가가장현명한방식으로영위할수있도록할것이다.¹

코뮌주의학파의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 (형용모순같이보이지만실제로이런것이존재한다) 은국가와사적소유를파괴하면모든것은잘될것이라말한다. 모든사람은자연스럽게합의할것이다. 노동은생리학적으로필요하기에모두는노동할것이다. 생산은언제나자연스럽게소비자수요를충족할것이다. 모든사람이즐거운일을한다면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않더라도, 모든개인은자신이필요한정확히그일을할것이기때문에규칙도합의도필요하지않을것이다.

결국, 가장아래에서부터살펴보면, 개인주의적아나키즘은단순히조화주의와섭리주의의일종에불과하다.

우리가보기에, 개인주의가함축하고있는원칙들은완전히틀렸다.

개별적인간은사회로부터독립적이지않고, 오히려사회의산물이다. 하지만사회가없다면개인은결코야만적동물성에서벗어나인간이되지못하였을것이고, 사회밖에서인간은빠르게원시적동물상태로돌아갈뿐이다.

입센이쓴『인민의적 An Enemy of the People』의주인공인스토크만박사가대중이그를이해하거나따르지않는데에짜증을내며“가장강한사람은가장고고히살아간다”고말할때, 그는완전한오류를범하고있다. 그는아나키스트라고받아들여지는데도말이다. 만약스토크만이타인보다더지식이있고, 타인보다생활에더역력이있다면, 그것은스토크만이사회회의득을취하여현재와과거의인간들과지적으로소통할수있는삶을살았기때문이고, 오히려사회에더종속되는것인데말이다.

사회안에서인간은자유로울수도, 예속될수도있다. 행복할수도, 불행할수도있다. 하지만이모든것을떠나인간은사회에남아야한다. 그것이인간을인간으로만드는맥락이기때문이다. 그렇기에인간은관념적이고불가능한자율성을갈망하는대신, 그자유와행복의근거를동료인간들과의합의에서찾아야하고, 타인과함께자신에게알맞지않은사회적기구를조정하여야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의식적이고분명한행동없이도자연스럽게확립되는조화를상징하는자연법에대한믿음은허황되고사실에반한다.

국가와사유재산이없어진다고하더라도, 조화는자연스럽게오지않는다. 자연이인간의축복과불운에매달린다해도결국그축복과불운을만드는것은인간이니말이다.

하지만만약우리가이해했다면, 우리는이를짧게이야기해야한다. 그리고우리의독자들이우리문건이너무길다고불평하는소리가들리는것같다.

그렇다면다음이시간에.

개인주의에대한첨언

지난호에서우리는조화주의(자연법칙이모든것을자동으로최선으로만들 것이라는신념)가개인주의자들의사상의기저이며, 이것이그들의따뜻하고감상적인모두의행복에대한추구를, 개인이절대적자유를누리며타인과타협할필요도없는사회라는이상과어우를수있는유일한길이있음을밝혔다.

진실을말하자면조화주의적요소는, 아니, 낙관적숙명론의요소는모든아나키즘과현대사회주의의각분파들에서도발견할수있다. 그이유는다양하며서로부딪힌다. 이는인간의필요성에의해살아남은종교적관념의잔재이기도하다. 이는부르주아특권을정당화하기위해이익의조화를말한경제학자의영향이기도하다. 이는자연과학의인기에기인하기도한다. 또한이는문제를예쁘고단순하게만들어서선전에사용하고자하는욕망의산물이기도하다. 또한어려움을마주하고해결하는것보다그것을무시하는것이더편하기때문이기도하다. 그리고모두의실수가논리적으로어떻게귀결하는지잘보여준다는점에서, 개인주의자들에게는참으로감사할따름이다.

하지만거의모든사람이오류를범했다는사실이그오류를정당화하지는못한다.

이소위자연에서발견할수있는조화라는것은오직다음과같은것을강조한다. 무언가가존재한다는것그자체는그존재의필요충분조건이만족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자연에는목적이없다. 아니, 최소한인간

적인목적은없다. 자연은인간의죽음, 상처, 고통에대해신경쓰지않는다. 그리고이죽음, 상처, 고통역시자연적“조화”의구성요소다. 고양이가쥐를먹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고, 우주적질서와완전히조화롭다. 하지만만약우리가쥐에게물어본다면, 쥐가그질서를좋아하겠느냐는말이다. 모든생명체는먹어야하기에, 생명의수와힘은각종에따른음식의양에따라제한된다. 하지만자연은이한계를재앙으로, 기아로, 퇴화로집행한다. 무수히많은예시를들수도있다.

자연이예술보다우월하다주장하기위해, 샤를푸리에²는이제는고전이된해괴한비유를들고나온다. 서로다른색의구슬로꽃병을채우고, 그꽃병을흔들고, 책상위에부으면, 그어떤화가가만들수있는것보다아름다운색의조화를볼수있을거라는말이다. 물론그럴수는있지만... 이렇게해서티치아노의《성모승천》을그릴수는없지않은가. 우리는아름다운을얻을수는있지만우리가원하는것을얻지는못한다. 그리고이것이핵심이다.

자연이섭리로서의제공자로서존재하는신비로운법칙이모든것을인간의입맛에맞게제공할것이라는것은잠시만자세히들여다봐도우스운, 모든근거와모순되는것이다. 숙명론은그것이우리를추동하는동기들과모순되더라도, 어쨌든납득할수있다. 하지만낙관적숙명론은, 지적인운명이인간의복리를신경쓴다는것은결코납득할수없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조화의법칙이있다면왜그법칙은지난수세기를미적거리다가, 우리가아나키를주장하는순간효력을발휘하는것인가?

국가와사적소유는오늘날사회적적대감의최대요인이이분명하다. 하지만국가와사적소유는자연법칙이기적적으로작용하여태어난것이고, 기존의적대감에의해영향을받았다. 만약국가와사적소유가과괴된다하더라도인민이이들을만들어낸갈등을조정할다른방향을정착시키지않는다면, 다시금살아날것이다.

이해관계와열망의부딪힘은현존하며앞으로도언제나존재할것이다. 만약현존하는갈등들이충분히제거되고자율적합의가등장한다하더라도다른갈등이튀어나와싸들것이다. 누군가에게새로운욕망이생겼을때, 그동료들의생각이즉각변화하여그의욕망을충족시킬수있게한다는것을상상이나할수있는가? 모든새로운생각이다른모두에게환영받을수있다고믿을수있는가? 모든새로운생각이옳을것인가? 더이상누구도실수를하지않는다는것인가? 아니면자연의법칙이라는것이너무나도다양성이부족해서각개인간의차이를억누르고, 모든개인이수학적정체성을자발적으로만들어낼수있도록한다는것인가? 만약그렇다면, 다시말하겠지만, 이러한끔찍한단일성은오직인간적구조에만속하는것이다. 자연은가만히내버려두면다양성을더많이만들어내기때문이다.

공허한장광설은그만두자. “모든개인의자유에는제약이없지만, 타인의자유와충돌하지도않는다”고말할때, 이것은송고하고사회진화에